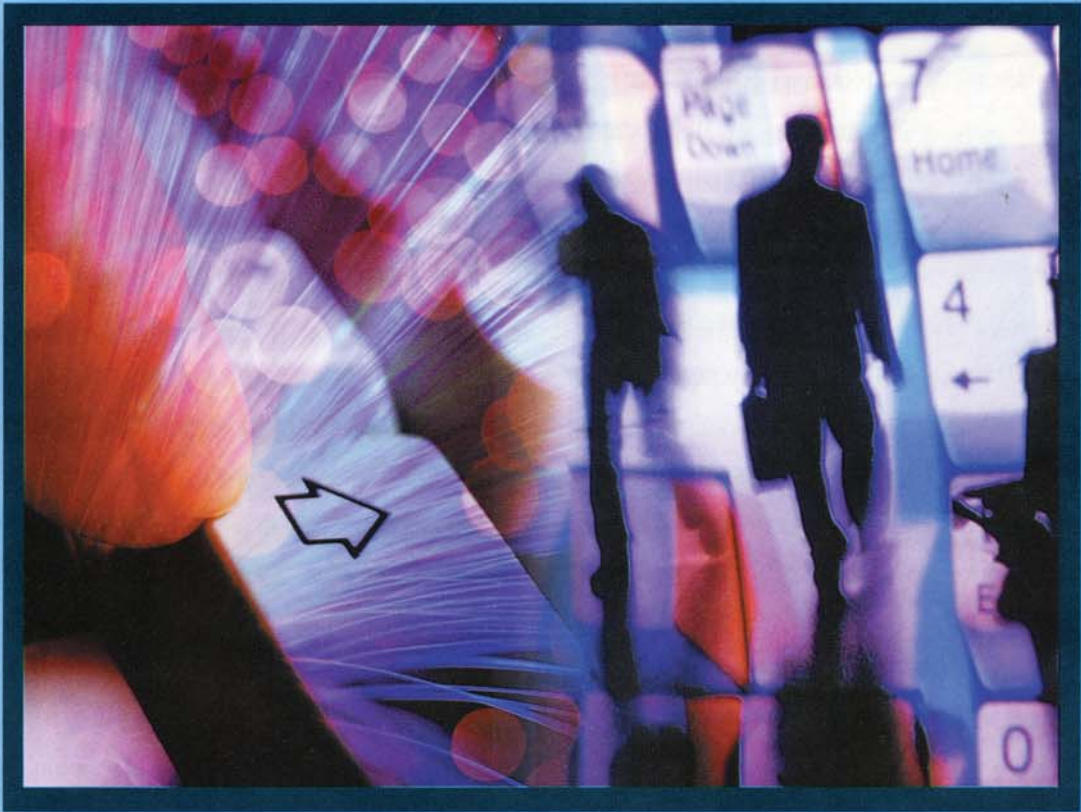


산학리뷰

2003년 7월 / 제14권 제7호 (통권 147호)



2003. 7

CONTENTS

- 2 • **산학칼럼** / 대구 · 경북지역 전략산업의 육성과 산업클러스터의 형성방향 6 • **특별기고** / 대구 · 경북지역의 노령화 실태와 문제점
 9 • **경영 · 기술정보** / 지식경영과 디지털 디바이드 14 • **제158차 월례세미나** / 참여정부의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21 • **대덕단상 I** / 일본 MK택시의 진절 신화 24 • **대덕단상 II** / 지방분권은 지역주체들의 혁신으로 부터
 27 • **만나봅시다** / 이시용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사업단장 30 • **연구원소식** 30 • **회원동정** 34 • **산학도서목록** 35 • **연구원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대구 · 경북지역 전략산업의 육성과 산업클러스터의 형성방향

이성근 | 영남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교수

1. 서론

OECD를 비롯한 선진국가들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략산업 육성의 다각적인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 Wales 지역의 Regional Technology Plan, 노르웨이의 Regional Development between State Colleges and SMEs, 그리고 핀란드의 National Centre of Expertise Programme 등이 있다. 이러한 전략산업 진흥계획은 지역의 혁신수요와 공급잠재력, 그리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육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략산업은 첨단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전통산업 분야도 선정·육성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지식기반경제의 대두와 신경제 체제의 확립으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의 육성·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가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즉, 최근 지역별 전략산업으로 육성된 내용은 주로 5T 산업과 같은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지역별로 차별성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경쟁력도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5T 산업이 지역실정에 어느 정도 적합한 지, 그리고 발전잠재력과 경쟁력 확보는 어떠한 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결여된 상태에서 전략산업이 선정된 것이다.

한편 유연적 생산체제로 표현되는 현재의 생산체제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끊임없이 창출되고, 이전 및 확산, 그리고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지역기술혁신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기술혁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기술혁신 계획은 기본적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주요 골자로 제시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기술혁신 체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EU의 개별지역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대구·경북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산업구조를 재구조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성에 바탕을 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체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산업구조와 지역혁신역량, 그리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의 선정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기술혁신 체제 구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II. 대구·경북지역 전략산업의 육성전략

다음에서는 대구·경북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다섯 가지, 즉 신산업의 발굴·육성과 전략산업의 점목, 과학기술특구의 지정 및 해외기업의 유치, 혁신네트워크와 혁신정보시스템 구축, 수요지향적 지역혁신정책의 제도화, 지방기술혁신 행정시스템의 구축 등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 신산업의 발굴·육성과 전략산업의 점목

신산업의 발굴육성은 개별지역의 혁신력과 향후의 발전잠재력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산업 육성계획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산업선정의 차별화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신산업의 육성은 지역의 혁신력과 향후 발전잠재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리고 국제적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산업은 지역적으로 차별화가 되어야 할 것이고, 대구·경북지역 전체의 측면에서 하나의 혁신클러스터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구·경북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게 지역산업구조를 재구조화하고, 혁신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5T산업 가운데 현재의 장점과 약점은 무엇이고, 미래의 기회와 위기는 무엇인가에 대한 SWOT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연관표에 의한 혁신클러스터 분석을 바탕으로 신산업이 전략적으로 선정되고, 이들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및 자금지원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전략산업은 지역산업구조의 가치사슬의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2차 산업 이외에도 1차 산업, 그리고 3

차 산업도 전략산업으로 선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1차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깨끗한 자연환경과 가치있는 문화유산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바, 이들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2. 과학기술 특구의 지정 및 해외기업의 유치

최근 출범한 참여정부는 과학기술이 부국의 원천임을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과학기술특구를 지정·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유입하고, 지역경제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테크노파크와 같은 신산업지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특구가 지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혁신역량이 높은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연구혁신클러스터를 육성·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최근 대구·경북지역 차원에서 중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테크노폴리스를 조기에 건설함과 동시에 첨단기업의 생산·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양성자가속기 등이 유치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개방화의 진전 속에서 지역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건전한 자본과 인력, 그리고 기술·지식이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유럽제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해외첨단기업 유치에 노력하였고, 이러한 해외첨단기업은 혁신의 니들목으로 지역 및 국가발전에 순기능적 역할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대만의 신축과학산업단지화 인도의 벵갈로르 소프트웨어밸리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새롭게 지정될 과학기술특구(혹은 지역연구혁신클러스터)에 해외기업을 비롯한 혁신기업이 자유롭게 입지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전문기구를 설립하여 해

따라서 대구·경북지역 차원에서 지역별·부서별 지역혁신사업을 조정·연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인 '대구·경북 경제·기술진흥연구소'가 필요하다. '대구·경북 경제·기술진흥연구소'는 대구·경북지역의 관련경제계획과 산업·과학계획, 그리고 지역종합계획과 연계함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사업의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각종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사후적·정량적 평가의 강화와 더불어 개별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외기업의 투자, 그리고 각종 수출입업무가 One-Stop 서비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혁신네트워크와 혁신정보시스템의 구축

대구·경북지역이 혁신지역으로 발전하고 산업기술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혁신의 이동통로, 즉 세계적 혁신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구·경북지역내의 다양한 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가 결합된 복합결절 (complex node)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사업 중심의 경성적 네트워크보다는 혁신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연성적 네트워크(soft-network)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혁신기업 상호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혁신네트워크는 혁신을 위한 협력을 증진시키게 될 뿐 아니라, 새로운 혁신조직을 창조하게 된다. 이는 최근 유럽이 각종 혁신정책에서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위해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는 경향과 일치한다.

그리고 지역혁신을 위한 혁신정보시스템, 즉 대학-연구소-산업체를 연결하는 공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혁신정보(기술, 인력, 정책, 자금 등)에 대한 접근 및 교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그 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 오던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참여하는 범 지역적인 정보시스템

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혁신정보시스템은 장기적으로 가상기술이전센터와 가상테크노마트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4. 수요지향적 지역혁신정책의 제도화

한 지역이 혁신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정치·경제적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이 상이할 수 있다. 이를 Paquet(1994)는 정원론(garden argument)으로 설명한다. 예컨대 지역경제를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식물 등이 있는 정원으로 간주할 경우 정원사는 모든 식물을 동일한 방법으로 재배하지 않듯이 지역혁신정책은 지역의 사회·문화·정치·경제적 조건에 따라 상이하여야 한다.

한편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역혁신기반 중에서 지방정부,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이 요구하는 세제·금융·조세 등에 대한 지역혁신정책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지역내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기업을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원조례의 제정 및 제도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지역 혁신수요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지역혁신계획의 수립과 체계적인 집행이 요구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5. 지방기술혁신 행정시스템의 구축

최근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방기술혁신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반면 최근 들어 지역발전에 있어서 기술혁신이 중요시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각종 사업과 예산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술혁신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개별 자치단체가 연합체의 성격으로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즉 대구·경북지역 차원에서 수행하게 될 각종 혁신정책과 사업을 연계하고, 공간별·산업별로 전문화와 차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참여하는 '대구·경북혁신협의회'가 독립적인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구·경북혁신협의회'는 대구·경북지역의 경제관계계획과 산업·과학계획, 그리고 지역계획을 연계함은 물론이고, 각종 지역혁신 프로그램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혁신정책의 조정 및 연계화, 그리고 사전적·사후적 평가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심도있게 연구·논의할 수 있는 Focus 그룹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각종 지역혁신사업들은 지역별·부서별로 조정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과 인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경상북도의 경우 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으나, 혁신사업의 예산조정 기능만을 수행할 뿐 지역별·부서별 사업의 조정과 연계 및 평가, 그리고 관계계획과의 연동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경북지역 차원에서 지역별·부서별 지역혁신사업을 조정·연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연구기관

인 '대구·경북 경제·기술진흥연구소'가 필요하다. '대구·경북 경제·기술진흥연구소'는 대구·경북지역의 관련경제계획과 산업·과학계획, 그리고 지역종합계획과 연계함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사업의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각종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사후적·정량적 평가의 강화와 더불어 개별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지역전략산업은 지역경제 성장의 추진력이 되는 산업 부문으로서, 성장거점 이론의 발전추진적 산업(propulsive industries)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지역전략산업은 생산, 고용, 소득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전략산업의 육성이 지역 전체의 성장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지역발전을 주도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략산업의 선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발전의 추진이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물리적 하부구조와 제도적 상부구조가 원활히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유럽제국과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정책의 추진이 부분적 접근(sectoral approach)에서 클러스터적 접근(cluster approach)으로 기능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지역개발정책을 특정 산업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클러스터를 바탕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클러스터의 지도를 작성한 후 지도상에서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찾아 전략적인 정책을 도입·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단위에서 산업통계가 작성되어야 하고, 이것이 다양한 연구활동에 활용되어야 한다. ❖

대구·경북지역의 노령화 실태와 문제점



박세정 | 성덕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최근 한국은 여러 가지의 사회변동에 의해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경험해 왔는데, 이러한 문제 가운데 노인과 관련된 사회·문화적인 변화로는,

(1) 인구학적으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현상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령노인 수의 절대적 팽창을 의미하며, 특히 후기 고령노인, 외상 상태의 노인, 치매노인 등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노인의 문제를 야기한다.

(2)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가족분화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출생 인구의 감소 등으로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를 가진다.

(3) 가치관 및 노인부양 의식의 변화이다. 역사적으로 노인은 의미있는 가족구성원이었으나 실제적인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는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부자중심의 가족관이 부부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여기에 개인주의까지 팽배하여 이념적으로는 전통적 가족제도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의식이 가족의 일체감과 연대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가족가치에 대한 변화는 전통적인 관습과 가치에 기초한 부양 의무에도 영향을 미쳐 가족의 부양 의식은 점차 변화되고 있다.

(4) 사회적 지원의 부족이다. 현재 한국의 노인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체계는 발전하고 있으나 분출하는 노인 및 부양가족의 다양한 욕구부응에 실패하고 적절히 대

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폭발하는 노인인구와 급속히 변모하는 사회구조 변화에 뒤떨어진 제도, 정책, 제반 프로그램은 노인과 가족이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 원조에 실패하여 확대와 방임의 문제를 가중시키는 현실이다.

특히, 경제발전에 의한 윤택한 생활여건과 의료의 발달로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는 최근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話頭)라 할 수 있는 노인 문제로 이어졌다.

여기서 우리는 노년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늙음이란 단순히 인간이 살아가는 생물학적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여러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며, 노화는 개인차의 문제로 노화의 시기와 속도, 정도가 모두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이란 생리적·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 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노인의 특성을 기능별로 구체화하면 첫째, 개인의 자각에 의한 노인은 노화와 관련하여 개인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노인이라고 인지하는 사람을 노인으로 판단한다. 둘째, 사회적 역할 상실에 의한 노인으로 주요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노인으로 분류한다. 셋째, 역연령(chronological age)에 의한 노인으로 시간 경과를 의미하는 달력상의 시간에 의

해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을 노인으로 판단한다. 현재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장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노인의 정의로 규명되고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모두 같은 특성의 노인으로 간주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연령에 따라 노인을 3가지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즉 60에서 64세를 연소노인(young-old), 65세에서 74세를 중고령노인(middle-old), 75세 이상을 고령노인(old-old)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적 연령(functional age)에 의한 노인은 노인 개인의 특수한 신체적 또는 심리적 영역에 있어서 기능의 정도에 따라 노인과 아닌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는 노화로 인한 다른 능력의 감퇴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수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개인이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람을 노인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또는 노령화 사회(aging society)라 하며 14%가 넘으면 고령 또는 노령(aged

society)이라 하는데, 우리 나라의 노인 인구가 2000년에 7%를 넘어서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이같이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인부양, 가치관의 변화, 노인 복지정책 등의 노인문제가 현재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 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5년, 일본이 26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2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화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사회 전반의 노동력과 저축여력 등을 약화시키고 노인에 대한 의료 및 소득보장 등의 복지수요가 확대되는 등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시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노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할 것은 불문가지인 것이다.

대구와 경북지역의 노인인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지역의 60세이상 노인 인구는 약 237,000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지역은 약 460,000명으로 16.6%를 나타내고 있다. 2020년경에는 대구지역의 노인인구는 약 524,000명으로 16.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경북지역의 노인인구는 약 670,000명으로 약 23.7%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증가로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노인복지시설의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 또한 그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다양한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 질병, 소외, 무위의 4고(苦)로 표현되는 노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현행 정책

〈표 1〉 인구 고령화 속도의 국제 비교

국 가	노인인구비율의 도달연도		소요연수
	7%	14%	
한 국 ¹⁾	2000	2022	22년
일 본	1970	1995	25년
독 일	1930	1972	42년
스웨덴	1890	1975	85년
미 국	1945	2014	69년
프랑스	1865	1979	114년

1) 통계청(1996a), 『장래인구추계』

대구 · 경북지역의 노령화 실태와 문제점

〈표 2〉 60세 이상 대구지역 노인 인구수 및 비율: 2000 ~ 2020

연 도	총인구	60+ 노인인구수	60+ 노인인구비율
2000	2,548,568	236,881	9.3%
2005	2,607,035	290,704	11.2%
2010	2,648,329	352,835	13.3%
2015	2,668,254	426,048	16.0%
2020	2,671,147	524,086	19.6%

〈표 3〉 60세 이상 경북지역 노인 인구수 및 비율: 2000 ~ 2020

연 도	총인구	60+ 노인인구수	60+ 노인인구비율
2000	2,767,059	460,488	16.6%
2005	2,817,762	504,026	17.9%
2010	2,850,993	540,108	18.9%
2015	2,860,646	590,529	20.6%
2020	2,848,982	674,354	23.7%

및 제도 등이 매우 소극적인 실정이다. 더욱이 대구 · 경북지역의 노인인구의 증가에 비해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통사회에서의 노인은 경험과 지혜를 겸비한 문화계승자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 존경과 위엄을 갖춘 사회적 성인이었으나,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경제발전에서 거추장스런 존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내륙 문화권인 대구 · 경북지역은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것이 특색이며, 영남 선비문화의 중심으로 유교적 전통과 윤리, 경효친 사상이 각별한 곳이다.

대구 · 경북은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한 영남내륙의 중심도시로서 대구-경북의 역사와 시민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즉, 낙동강의 풍부한 물은 대구를 산업도시로 성장시키는 주요 자원이 되었으며, 사방을 둘러싼 산들은 한서의 차가 심한 기후와 대륙적이고 보수적인 시민기질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유교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이나 경로사상이 일반적이었고, 현재 동양에서는 노인을 경외의 대상으로 보는 동시에 서양처럼 부양 및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이중적인 노인관이 존재한다. 최근에 와서 과학기술의 진보와 경제 성장에 따른 핵가족화의 진행에 따라 경로사상은 외형적인 형식으로만 남은 듯 하며, 노인을 사회적으로는 생산능력을 잃은 대신에 의존성이 높아진 존재로 보는 부정적인 태도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 매스컴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모든 세대가 이 사회를 함께 유지, 발전시킨다는 인식과 더불어 대구 · 경북지역의 노인인구증가와 노령화에 따른 노인학대 및 치매노인과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

〈표 4〉 대구 · 경북 재가노인복지시설

시 · 도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대구	8	745	6	73	1	7
경북	6	605	6	138	1	10

지식경영과 디지털 디바이드



이 훈 | (주)e-SIS 대표이사

왜 지식경영인가?

최근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 변화의 큰 특징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와 이제까지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던 생산부문에서 혁신적인 연구개발과 서비스 쪽으로 '가치이동(Value Shift)'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를 하나로 엮은 인터넷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있기에 기업의 경영환경을 디지털화 하지 않고는 더 이상 생존을 보장할 수 없음을 자명한 일일 것이다. 또한 생산이 소비를 앞지른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일반적인 제조기술만으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존 고객을 잘 유지하며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통하지 않고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 또한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보유한 혁신적인 연구개발 역량과 고객관리 노하우(Know-how) 등을 '지식(Knowledge)'이라 할 것이며, 이를 디지털화 한 것이 '지식관리 시스템'이며, 이를 잘 활용하여 기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지식경영'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지식경영은 기업의 선택 사항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이다. 본 고에서는 지식경영의 기반인 지식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 협업 시스템'을 살펴보고,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현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지식기반 협업 시스템(EKP : Enterprise Knowledge Portal)의 구성과 구현 모델

지식은 '데이터 - 정보 - 지식 - 지혜'의 과정 중에 있다. 따라서 가장 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 분류, 가공하여 정보화하고 이를 지식화 하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 기업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는 정형적인 데이터와 비정형적인 데이터가 있다.

정형적인 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솔루션에는 최근 중소기업에까지 널리 확산되어 활용되고 있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사적 자원 관리)를 비롯하여, 고객관리시스템인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공급망 관리 시스템인 SCM(Supply Chain

Management), 제품설계 관리 시스템인 PDM(Product Data Management) 등이 있다.

또한 비정형적인 데이터는 그동안 수집하고 분류, 가공하여 정보화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관계로 그동안 기업이 쌓아 놓았던 많은 지식 자원이 개인의 서랍 속이나 캐비닛 속에서 잠자며, 분명히 쌓여 있는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찾지 못하고 다시금 기업의 재 자원을 투입하여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비정형적 데이터를 기업의 지식으로 자원화하고, 나아가 ERP, CRM, SCM 등 기간시스템뿐만 아니라 외부에 산재된 자료에까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솔루션인 EKP(Enterprise Knowledge Portal)를 삼성그룹을 비롯한 KTF, 삼립산업 등 앞서가는 기업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법무부, 행정자치부와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그 도입이 급속하게 확산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의 [그림1]은 EKP 구성(예)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2]는 EKP 구현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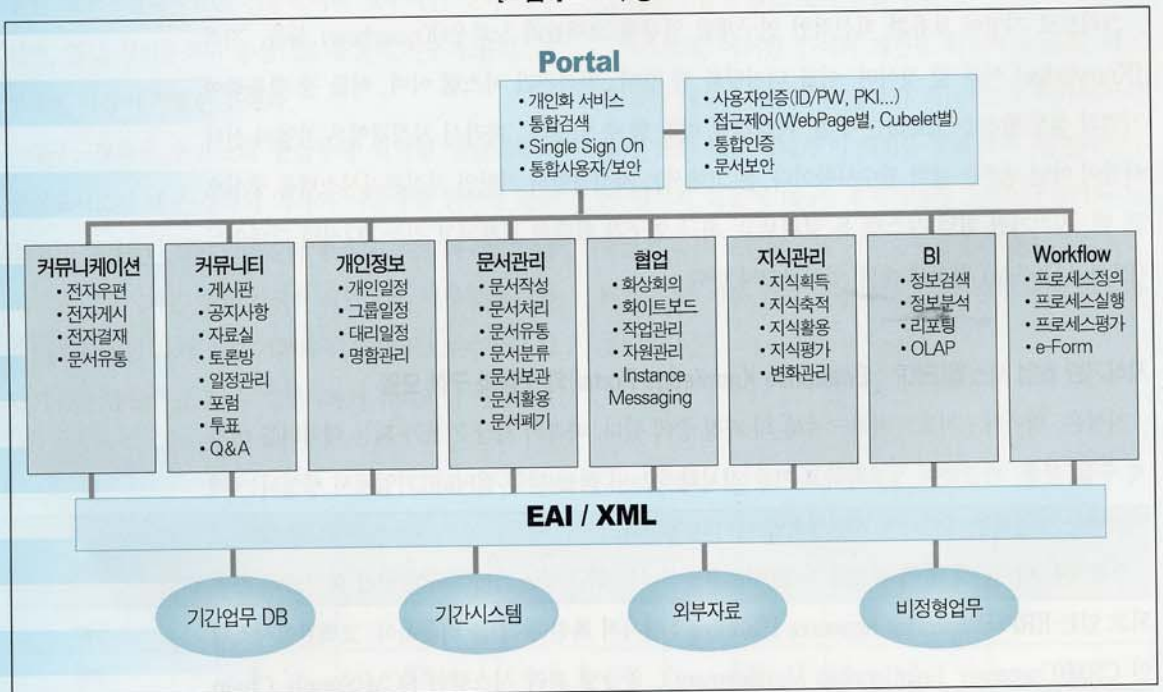
1) Portal

포탈은 기업내 모든 정보서비스나 시스템을 한 곳에서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지고, 향후 시스템의 확장 또는 통합을 용이하게 하여 주는 툴(Tool)로서 정보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가능하게 한다.

2) 그룹웨어(G/W: Group-Ware)

임직원/부서간 정보의 전달, 처리의 자동화로 정보의 공유 기능을 제공하고,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되어 협업을 가능케 하므로

[그림1] EPK 구성



기업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그룹내/사내 단위 조직별 수평적 정보 공유 체계를 구현한다.

3) 문서관리(DM: Document Management)

사무처리 시 발생하는 모든 문서들을 체계화된 분류/절차/보안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임직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문서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스피드를 향상 시키고, 업무 Know-how를 축적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4) 지식관리(KM: Knowledge Management)

사내/외 분산된 지식원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지식 Life Cycle에 따라 지식을 등록/ 검증/이력관리/수정/평가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타 시스템과의 원활한 정보의 연계 기반을 제공하고, 기존 지식의 활용을 통한 신규 지식의 창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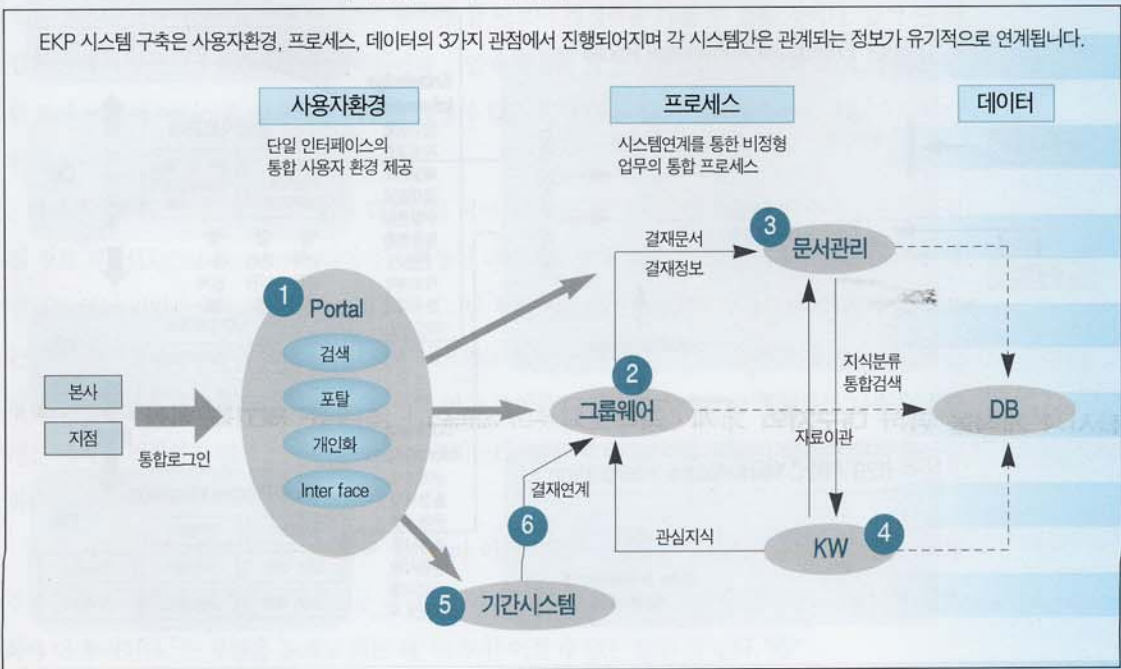
5) BI(Business Intelligence)

기업의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 분석 자료를 보고서 형식에 맞게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툴로서, 개발 생산성의 향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시키고, 업무 프로세스 단축 효과를 구현한다. 또한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영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

6) EAI/시스템 및 결재 연계

EAI는 회사의 다양한 업무 Process를 정형화하기 위한 Rule Base 프로세스 엔진 기능과 Work Flow 기능을 가진 툴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통합을 원활하게 한다.

[그림2] EKP 시스템 구현 Model



또한 포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각각의 정보시스템은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 및 시스템 통합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구축되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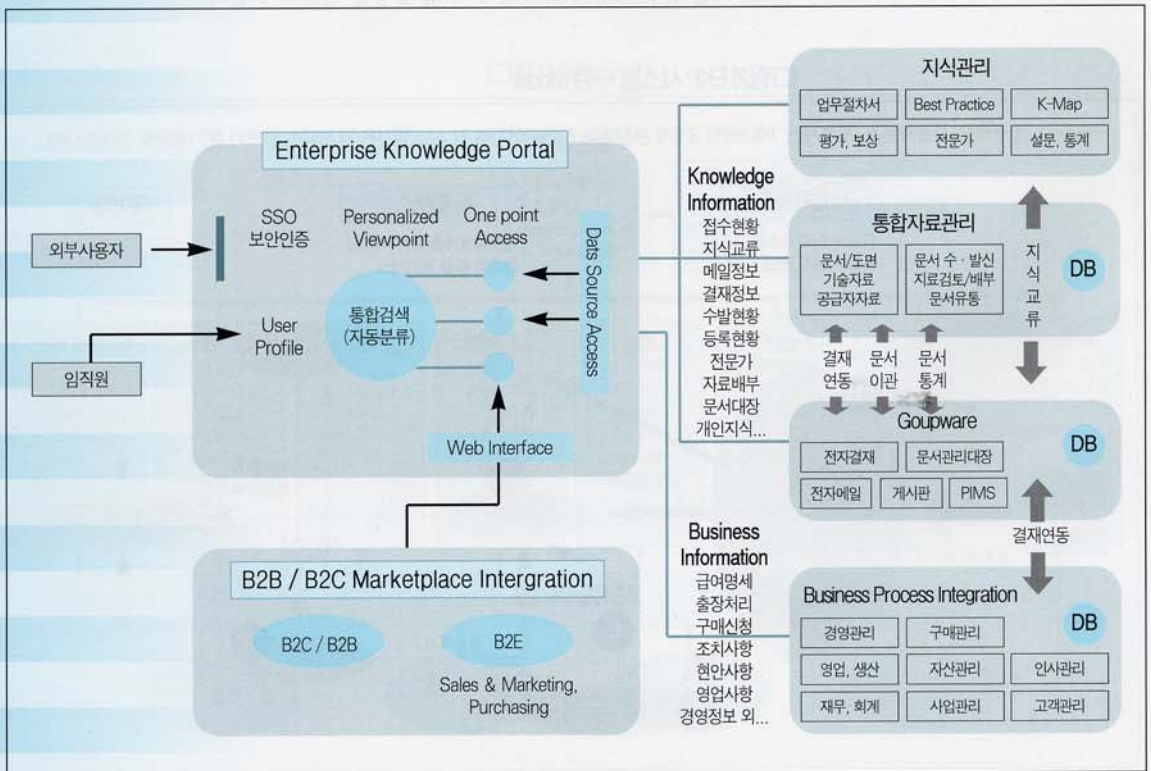
지식기반 협업 시스템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나?

지식경영을 위해 EKP와 주변의 ERP, CRM, SCM과 PDM 등을 통합한 '지식기반 통합정보 To-Be System'은 [그림3]과 같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열거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면 지식경영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ERP의 경우도 정부의 기업당 2,000~3,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여 많은 기업에서 도입하였으나, 대다수의 기업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EKP 시스템을 지식경영으로 승화시키자면 다음과 같이 구현해 나가야 한다.

첫째, 최고경영자의 전자결재 등 시스템 활용

EKP 시스템은 기업의 업무프로세스와 문화를 바꾸는 일이다. 따라서 그 중심에 최고경영자가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수년 전 같은 규모의 S사와 T사에 그룹웨어와 문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었다. 그중 한 회사는 최고경영자가 전자결재를 중심으로 한 업무 프로세스의 재정립을 통해 기업의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 최근 기존의 그룹웨어와 문서관리에 지식관리 및 BI, EAI를 활용한 ERP와 시스템 및 결재 연계를 통해 '지식기반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 국내외 1,200여명의 임직원이 같은 가

[그림 3] 지식기반 통합정보 To-Be System



족이라는 공동체 의식과 지식마일리지 제공을 통한 아이디어와 기존에 보유했던 지시기반을 디지털화 함으로써 진일보한 것이다. 반면, 다른 한 회사는 기 구축한 그룹웨어가 있는 지, 없는 지 모를 정도로 방치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40대 이상의 경영자 분들은 대개 컴퓨터 관련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정보시스템과 컴퓨터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클릭만 할 수 있다면 정보시스템을 경영에 활용하는 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금방 알게 될 것이다.

둘째, 너무 서두르지 말자.

기업의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물가에서 승능을 찾는 사람처럼 결과에 집착하게 되는데, EKP 구축에 있어서도 그리된다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적게는 수십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전 조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이 시점까지 꾸준한 교육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여러 포털 사이트가 등장하며 많이들 접하고 있기에, 약간의 관심과 지원만으로도 빠른 시간 내에 큰 효율과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셋째, 향후 '지식기반 통합정보 시스템' 구현이 가능한 솔루션을 선정하자.

각각의 개별 시스템들을 선별하여 구축하다 보면 통합을 통해 얻어지는 업무 혁신을 놓치기 쉽다. 따라서 향후 '지식기반 통합정보 시스템' 구현이 가능한 솔루션을 선정하여 투자를 예산에 맞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맺음말 :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evide : 정보 격차)

지식경영을 위한 '지식기반 협업 시스템'인 EKP 구축이 기업의 성공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보유한 정보력과 최첨단 무기가 단시간 내에 승리로 이끌었듯이, 기업도 첨단 시스템으로 대응을 할 때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두 기업의 예에서 보듯이 1,000여 명의 아이디어와 기업에 필요한 각종 지식들을 디지털화 하여, 주어진 권한 하에서 언제 어디서든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과는 어느 쪽에 경쟁력이 있을 지는 자명한 일이다.

이렇듯 국가와 산업, 그리고 기업이 디지털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고 점점 정보 격차(Digital Devide)가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보 격차가 단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는 기업문화와 연계되어 있고, '지식기반 협업 시스템'인 EKP로 무장(?)한 기업과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진다. 더더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제 모든 기업들은 정보가 자유로이 유통되는 e-비즈니스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따른 줄어든 마진과 소비자의 패턴 변화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는 생존을 위협받게 되는데, 이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기업의 디지털화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을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은 이제 정확한 투자 계획에 의거하여 차근차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가끔은 경영자 들로부터 "벌어서 정보화에 다 투자된다."는 푸념을 듣게도 되는 데,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

참여정부의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김병준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편집자 주 : 2003년 6월 17일(화) 대구프린스호텔 별관 5층 글로리홀에서 개최된 본원 「제158차 월례세미나」의 발표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SEMINAR

I. 참여정부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의 필요성

1.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시민사회의 변화>

변화의 내용	대응방향
• 권리의식의 및 참여욕구 증대	• 참여 확대 • 질 높은 서비스 창출
• 각종 자원의 동원능력 향상	• 시민사회와의 협치기제 강화

<정책의 변화>

변화의 내용	대응방향
• 정책 수요의 대량화	• 높은 생산성
• 정책 내용의 다양화	• 폭 넓은 수비범위
• 정책구조의 복잡화	• 수평적 협력체계
• 신속성 · 전문성	• 빠른 의사 결정, 높은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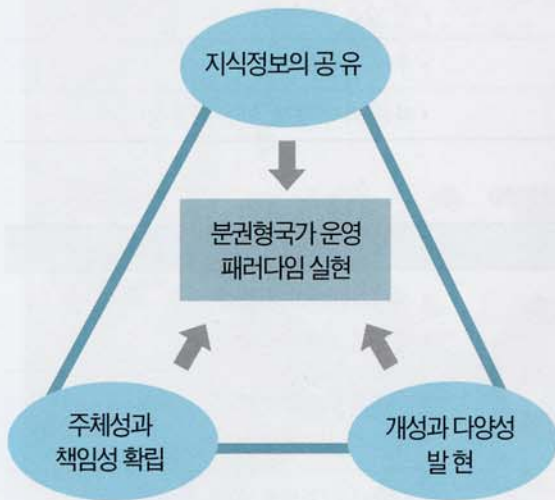
<사회환경의 변화>

변화의 내용	대응방향
• 지식정보화	• 지식기반관리의 강화 • 네트워크 조직 구축
• 세계화	• Global Standard에의 정합성 • 사회 각 부문의 역량 제고
• 지방화	• 지방자치(지방분권)의 발전 • 국가 균형개발 촉진

▷ 정책 · 시민사회 ·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국정관리체계(New governance)를 구축하는 정부혁신 작업이 필요

2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

-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변화된 정치 환경은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統治(Government)에서 協治(Governance)로
 - 관에서 민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소외에서 참여로
- 세계화 현상은 국가역할의 변화와 지방의 역할 증대를 요구하고 있음
 - 국가의 매개없이 지방이 직접 세계를 대면
 - 지역중심의 생활안정망 요구
 -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지역경쟁력 강화
- 21세기 정치환경은 지식정보의 공유, 주체성과 책임성 확립, 개성과 다양성 발현에 기초한 분권형 국가 운영을 요구



-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지방분권이 시대적 명제로 대두
 - 지난 압축성장 시대의 중앙집권체제가 더 이상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 발전에 병목현상 초래

- 획기적 지방분권으로 지방활력을 통한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도모할 필요

II. 우리나라 행정과 지방분권의 현주소

1. 우리 행정의 현주소

- 전반적으로 60~70년대 국가주도의 패러다임을 유지
- 정부주도형의 정부-시민사회 관계 정립
 - 참여 및 협치기제의 취약
 - 시민사회의 자기 책임적·자기 정화적인 자율성장을 제약
 - 행정 감시기능 취약으로 부패 발생의 소지 내재
- 정책관리에 있어 수직적·부처중심 체계를 유지
 - 부처할거주의로 수평적 협력체계 취약
 - 부처 중심의 정책구진으로 정책의 통합성 미약
 - 부처 내에서도 수직적 조직체계로 운영, 부서간 정책 협조 미흡
- 폐쇄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
 - 자기혁신을 위한 노력과 실험정신 부족
 - 개방성 부족으로 공직사회의 전문성 확보 곤란
- '분권과 자율'에 반하는 행정운영 방식과 개혁기반 취약
 - 의사 결정구조의 하향성으로 창의력 발휘 부족
 - 권한의 집중으로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곤란
 - 평가시스템이 취약하여 자기학습적이고 상시적 개혁 곤란
-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하여 보상의 왜곡현상 및 사기 저하 초래

SEMINAR

2.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현주소

□ 중앙권한이 지방에 비해 과다

	'94	'96	2002
국가사무	75%	74%	73%
기관위임사무	12%	8%	3%
지방사무	13%	18%	24%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남설현상 지속

• 지방자치단체와 기능 중복에 따른 낭비 초래

※ 총 24개 부처 6,539개(2003년 2월 기준)

□ 과도한 국가의존적 지방재정 구조

• 국세 대 지방세 비율 : 80%:20%

• 지방세로 인건비 해결 곤란 : 151개 자치단체(61%)

□ 先 지방자치제 도입 後 지방분권으로 자치권 신장 미흡

• '91년, 30년만에 지방자치제를 재도입했으나 분권추진 미약

• 획일적 제도와 규제 위주로 지방의 창의성과 자율성 신장 미흡

• 자치경찰제 미도입과 교육자치 미흡으로 지방자치 종합성 저해

□ 중앙정부의 과부하로 기능장애 현상 초래

• 적정 역할분담 미흡,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효과적 국정수행 곤란

□ 지방정부의 자치역량과 권한 부족으로 지역문제에 대한 대응능력 빈약

• 지방정부는 모든 현안문제를 중앙에서 해결해 주기를 의존

• 시민사회의 미성숙으로 자율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저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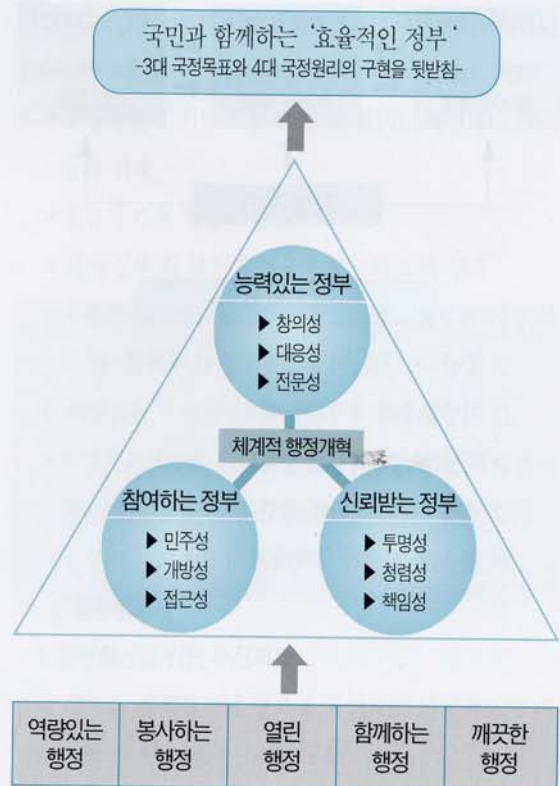
• 지역이기주의 현상과 지역갈등·대립이 여전함에도 중앙-지방정부, 지방정부간 대화와 상호협력에 의한 상시적 협력체제 및 기능이 미약

□ 과도한 중앙집권은 집중 현상을 초래

•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국가발전 저해, 지방경제력의 쇠퇴, 지방인재의 유출

III. 참여정부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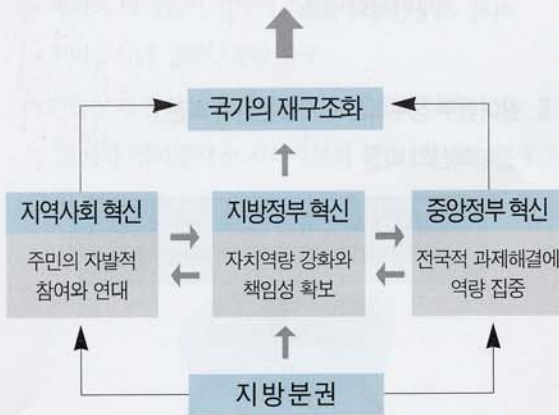
1. 정부혁신의 비전



2. 지방분권의 비전

지방 활력을 통한 국가발전

-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분권국가
-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국가
- 아래로부터 지속적인 자기혁신이 가능한 국가
- 자율과 책임, 공동체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가



추진방향

- ▷ 중앙- 지방간, 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
- ▷ 지방정부의 자치기반 확충
- ▷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 ▷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 ▷ 정부간, 지역간 협력체계 정립

IV. 추진 원칙과 전략

1. 정부혁신의 추진 원칙과 전략

과거에는	앞으로는
정부 주도적 개혁	⇨ 참여적 · 협력적 개혁
타율적 · 하향적 개혁	⇨ 자율적 · 상향적 개혁
일회성 개혁	⇨ 단계적 · 지속적 개혁
갈등 유발형 개혁	⇨ 갈등 관리형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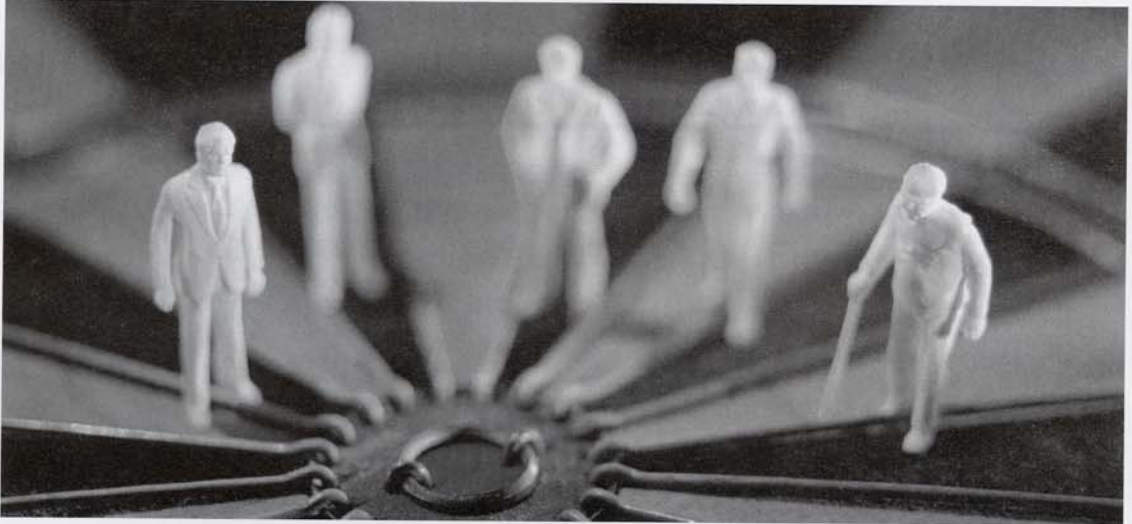
-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해집단,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 수시 마련
- 공무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고 실천한다는 보람과 긍지를 부여하여 자발적 참여 유도
- 최적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험, 보완, 실행의 단계적 학습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혁 추진
- ※ 내년 2월 경, 국내 · 외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정부 혁신 박람회' 개최
 - '학습의 장' 으로 활용, 상시적 개혁이 추진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아시아권에서 앞서가는 혁신국가로서의 이미지 고양
- '대화과 토론' 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로 개혁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는 갈등관리형 개혁 추진

2. 지방분권의 추진원칙과 전략

- 선 분권, 후 보완
-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자정능력에 대한 신뢰 표명
- 강력한 재정분권을 핵심전략으로 하여 우선 지방의 재정력 강화
 - 재정이양과 동시, 또는 이후에 권한이양 등 보완

SEMINAR

일본 MK택시의 친절 신화



□ 보충성의 원칙 존중

- 시민사회 우선 및 기초지방정부 우선 원칙에 입각한 역할 재배분
- 주민생활과 밀접한 권한은 기초지방정부 위주로, 광역적 권한은 광역지방정부로 배분
-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없는 기능은 중앙정부에 배분

□ 중·대단위 사무를 중심으로 포괄 이양

- 관련 사무를 동시에 포괄적으로 이양
- 지방정부 차원에서 종합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이양

□ 차등적 접근

-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규모와 능력 등 특성을 반영한 분권 추진

□ 선도적 과제의 적극적 추진

- 지방분권 효과성과 요구도가 큰 과제 우선 추진

□ 시민사회와 학계 등으로부터의 추진동력 확보

- 언론, 정치권, 주민,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과 협의·협력하여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전개

□ 행정개혁, 전자정부 개혁, 재정·세제개혁 등과 연계 추진

- 중앙정부의 기능조정 작업 및 BPR, 재정제도 개혁 등과 연계
- 통합적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

□ 중앙정부 각 부처의 자율적 분권화 노력 강화

- 자율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새로운 기능 부여 등

□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적 조치 시행

- 지방의회제도의 개선, 행정투명성의 강화,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등으로 문제점의 완화 또는 방지 노력

V. 중점추진과제

1. 정부혁신을 위한 추진과제

-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

- 정부기능을 획적으로 연계하는 정책 및 프로세스 중



SEMINAR

제 158 차 월례 세미나

심 의 수평적 조정체계 구축

- 하부조직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분권형 조직설계
- 공직사회의 형식주의 철폐, 불필요한 기능폐지 등을 위한 상시적 부처자율 진단체계 구축
- 정책 및 주요사업에 대한 상시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인프라 구축
-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전환하는 한국적 성과 감사제도 구축
- 위기를 진단하고 대처하는 위기관리 능력의 배양과 부처간 협조체계를 극대화하는 위기 관리시스템 제도화
- 유능한 인재의 발굴·영입·육성을 위한 새로운 인적관리체계 모색
- 국민의 눈높이 수준에 맞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 행정편의 위주에서 국민편의 위주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행정 수혜로부터 소외된 계층에 대한 행정서비스 공급의 형평성 제고
- 고객중심의 서비스 마인드 확산을 위한 부처별 '서비스 스탠다드 운동' 전개
-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민원제도 개선
-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여론 수렴기능을 강화
- 행정기관 보유 정보에 대한 공개 확대
- 정보 이용방법을 다양화하여 정보접근성 강화
-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제안 활성화
- 공직사회의 특권문화 청산과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

- 공직사회에 불평과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권위주의적 행정문화 청산
- 공직사회내 부패·부조리 유발요인 제거
- 공직사회의 자정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윤리강령 운영 내실화
- 책임있는 행정, 공정한 행정을 위한 재량행위 기준과 원칙 설정

2 지방분권을 위한 추진 과제

-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을 통한 지방정부 역할 확대
- 중앙정부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 중앙-지방정부간, 지방정부간 기능배분 체계의 개선
-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 지방정부의 자치기반 강화
- 지방자치권 강화
-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확보
- 지방의정 활성화
-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 지방정부 내부혁신 강화
-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 주민직접 참정제도의 정비 및 강화
- 정무간, 지역간 협력체계 정립

일본 MK택시의 친절 신화

경북대학교 제 17차 경상대학 LG 세미나

1. 일시: 2003년 5월 13일(화) 1400 ~ 15:30

2. 장소: 경북대학교 제 4합동 강의실 108호

3. 주최: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LG 세미나 위원회

4. 주제: 일본 MK택시의 친절 신화

5. 발표: 유태식 일본 MK그룹 부회장

※ 편집자주: 지난 2003년 5월 13일(화) 1400 ~ 15:30 경북대학교 제 4합동 강의실 108호에서 개최된 「경북대학교 제 17차 경상대학 LG 세미나」의 발표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1. 소개

- MK그룹 회장 유봉식, 부회장 유태식(한국인)
- 43년 전 택시 10대로 시작하여 현재는 1,2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도시에서 진출해 주기를 희망함.
- 12년 전 전국 최초로 국가행사(교토 식목행사, 2일간) 내빈 수송을 맡음.
- 현재 MK택시는 일본 동경대생 취업희망 1위 회사임.
- MK택시 기사가 되기 위해 매년 8천여 명이 지원하며, 1년 필요 인원인 40명을 채용함.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기사들이 친절로서 시민의 마음을 열고 있음.

2. 친절서비스

- 택시기사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직업임. 그런데 인간 목숨을 수송하는데 왜 타 직업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가? 더불어 과일러트는 왜 높게 평가되는가? 이유는 교육 수준이 높아 친절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기 때문임. 이런 점을 감안하여 43년 동안 경영해 옴.
- 참고로 대학생들에게 강연을 할 때 남학생에게는 택시기사가 장래 희망인 사람, 여학생에게는 택시기사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파악해 보면 아무도 없음. 이처럼 사회적으로 인정 또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임. 그러나 MK택시 기사가 되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짐.

-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다수의 택시회사가 있는 동경에 진출함. 타회사와 노조에서는 소도시에만 친절 서비스가 통하지 대도시에는 어렵다고 장담함. 그러나 동경 시민의 마음을 열게 됨.

- MK 영접법 : ① 손님의 사인이 있을 시 하차하여 인사함
 ② 손님 탑승시 '도어 서비스' 실시
 ③ MK 인사 시행

- MK 인사법 : ① 감사합니다. MK입니다.
 ② 어디까지 모실까요? 예, OO까지 모시겠습니다(목적지 확인).
 ③ 저는 기사 OOO입니다(자기소개).
 ④ 잊은 물건이 없으신 지 확인하시고,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경도 시민과 약속한 적이 있음. 기사들이 '고객이 많은 데 왜 이런 약속을 하는가?' 라고 항의함. 그러나 고객이 많을 때부터 친절서비스를 해야함을 주장하며 실시한 결과 MK택시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됨. 타회사에서는 로비, 시위(한국인 약덕업자 물러가라)를 통해 MK택시를 어렵게 만들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친절서비스를 계속하였으며, 결국에는 경도 시민의 옹호와 협력으로 MK택시는 지켜졌음. 즉 친절이 회사 운명을 지킨 것임. 현재 경도 시민 99.9%가 MK택시 이용을 원하며, MK택시가 망하면 경도 시민의 수치라고 생각함. 시민의 힘으로 MK택시가 생존하였기에 더욱 더 친절서비스로 보답함.

- 시민들은 MK택시 탑승만 희망하나 수요에 충족할 만큼의 보유 택시가 없어 어려움. 택시 보유수는 자유화되어 희망하는 만큼 가능하나, 인재 양성이 문제임(10대 증차시 25명이 필요).

- 학사 기사를 요구하는 고객은 평소보다 요금을 50% 더 지불함. 그러므로 학사 기사는 경제적으로 유택해지고 회사의 수익도 높아짐.

- 2,500개 택시회사 중 MK택시만이 저렴한 요금으로 경영함. 타회사에서 많은 질타를 함. MK택시가 요금을 인상하지 않자 교통부장관의 외압이 있었음. 이유는 택시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한 회사에서 인상하지 않을 시 모든 회사가 인상할 수 없음. 결국 8년간의 법정싸움을 하게 됨. 어쩔 수 없이 도시마다, 법인체마다 요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게 됨. 시민들은 농담으로 택시에 관한 정책은 교통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MK택시가 한다고 함.

- 무조건 싸게 판매하는 것보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판매해야 함. 요금도 저렴하고 친절함 택시에 대한 수요만 증가함. MK택시만 요구하게 되어, 타회사는 경영이 어렵게 됨.

- 안동병원 강보영 이사장은 26회의 일본견학 및 청강을 통해 국내 최초 MK 친절서비스 도입함으로써 재도약 기회를 맞음.

(홈페이지 <http://andonghospital.co.kr> / 원훈: 서로 믿고, 서로 돕고, 서로 친절하자.)

- 실천하는 자 위대하며, 실천하는 자에겐 기회가 있다.

- 친절하라. 친절이 모자라면 세계에서 존경 못 받는다.

3. 생활환경개선

- 43년 전 10대로 시작할 당시 아침에 택시기사는 기분에 따라 출근하거나 무단 결근을 하였음. 1대의 택시가 영업을 못하는 것은 큰 타격이었음. 쉬고 싶은 기사는 미리 휴가를 신청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호응이 없었음.
- 타회사 사장께 조언을 부탁하였는데, 10대에 25명이 필요하다면 여유있게 35명을 채용하여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대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하였음. 즉 택시기사보다는 사장 위주로 경영하는 것이며, 그 당시의 택시회사 경영방침이었음.
- 이 방법을 따르지 않고, 먼저 모든 기사의 주거환경 등을 확인하였음. 기사들은 가난하였기에 불편한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이유로 피로가 풀리지 않아 무단 결근이 초래되었음. 먼저 주거환경을 정비하자는 생각으로 주택정책을 실시함. 무단 결근이 없어지고 사고도 줄었음. 회사가 일부 부담하는 형식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게 되어 모두 안정되었고, 친절교육의 효과도 높아졌음.
- 경영자 역할은 골프, 사우나 등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임.
- 직원이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윤택한 삶을 살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선 교육이 필요함.

4. 장애인 우선 승차제

- 장애인의 절실한 편지를 받은 적이 있음. 버스, 지하철은 이용이 힘드니 도와달라는 내용임. 내부적으로는 노조에게, 외부적으로는 경도택시조합에서 거절당함. 그러나 MK택시라도 먼저 시작하고 추후 발생하는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자는 마음으로 실시함.
- 장애인 우선 승차제 및 10% 할인제 실시(일본 전국 교통기관 최초 실시)
- 나중에는 MK택시가 사회적으로 위대한 일을 한다며 시민들이 MK택시를 더욱 더 이용하여 수익이 오르게 됨. 10% 할인하면 수익이 떨어질 줄 알았으나 더 상승하여 직원의 소득도 높아지게 됨. 즉 사회적으로 위대한 일도 하고 소득도 높아짐.
- 나중에는 일본 전국 택시에 전파되었으며, 버스·열차·비행기에도 장애인 우선 좌석 표시가 됨. ♡

*저서: 「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KS택시(김인남 대표이사): 국내 유일 일본 MK택시 자매결연 회사(홈페이지 <http://www.kstaxi.co.kr>)

지방분권은 지역주체들의 혁신으로 부터



채장수 | YTN대구지국장(E-mail. jschae@ytv.co.kr)

지난 7월 11일 대구에서는 우리 현대사에 참으로 증대하고도 의미있는 사건(?)하나가 조용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구지역이 중심이 돼 추진해 온 지방분권운동의 법적 근거인 지방분권 특별법안과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이 발표된 날이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의 관련 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 없다'는 명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먼저 지방분권 특별법안을 보면, 2007년 까지 5년 동안 한시법으로 하되 매년 정기국회에서 지방분권 일괄법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의 주요 시책을 결정·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재정권한을 넘기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관위임 사무의 폐지와 세원이양, 지방자치경찰제 실시, 주민소환제 등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대폭 넓히는 것이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은 5년 단위로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지방대학 육성, 지역 선도산업 육성, 불균등의 해소 등이 포함되는 시·도별 발전계획을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 세우도록 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과 서울/수도권에서 지방/비수도권으로 자원의 분산이라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방분권운동은 일치감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만큼,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는 심각하다. 특히 서울의 과잉상태 때문에 빚어지는 손실과 병폐보다 지방의 황폐화가 안겨주는 불균형의 곪은 상대적으로 더 깊은 게 현실이다. 우리의 지방분권운동의 환경이 척박하고 역사가 일천하지만 그동안 분권과 분산에 대한 공감대 확산운동, 지역기업 살리기 운동, 지역 정체성 확립운동, 지역교육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괄목할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1. 민주적 지방분권으로

흔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결정권 없는 지방자치' '세원 없는 지방자치' '인재 없는 지방자치'로 빗대고 있다. 이 가혹한 정의들은 지난 10여 간 실시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허구성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참여 지방자치에는 이르지 못한 채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지역갈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가 배제된 현재의 행태는 자치단체장들 스스로 '봉건영주적 권위주의'에 빠져 주민에게 군림하는, 지방자치의 근원부터 회의스럽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체제 이후의 발전모델로 정치체제는 민주적 중앙집권체제, 경제체제는 민주적 시장경제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민주적 중앙집권이 아니라 민주적 지방분권으로 나아가 지역주민들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조개혁과 체제개혁을 이룩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주민들이 행정에 깊은 이해와 견제는 물론 직접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와 결합된 분권만이 기본방향인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에 추가해 '주민에 결정권을'이라는 요소를 만족시킬 수 있다.

2. 지역혁신과 주민자치와 결합되어야

지방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중앙정부에 매달려 돈을 더 주고 도와 달라는 타령만 늘어 놓는다면, 국회의원 등을 통한 로비에 매달리고, 단순히 우리지역 또는 나에게 특혜조치를 해주어야 한다는 식의 낡은 사고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시대가 변했다. 지방분권은 자기문제는 자기가 결정한다는 사고와 조직과 집단의 문제는 그 구성원들 스스로 해결한다는 사고, 자기혁신을 통해 지역

을 발전시킨다는 사고 즉 자기결정과 자주관리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1) 지방분권은 지역혁신과 결합되어야 한다.

지역혁신 프로그램이 수반되지 않은 지방분권은 자칫 단체장과 의회, 지역대학 등 특정세력에 의한 과실 따먹기에 그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중앙집권-서울집중체제의 낡은 구조를 극복하려는 구조개혁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패러다임을 혁파하려는 주체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 지역주체(기업, 지방정부, 업계, 연구소, 대학 등)들의 능력향상이 없다면 지방분권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없다. 주체들의 자질향상 없는 분권은 오히려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지역혁신은 지역을 학습지역으로 만드는 등 소수 엘리트 중심이 아니라 지역주민 주체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분권을 요구한 만큼 절실한 것이 바로 지방 스스로의 분권 역량이 절대적이며 이러한 내부적 분권역량의 핵심이 바로 혁신이다.

2) 지방분권은 주민자치와 결합되어야 한다.

참여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와 결합되지 않은 지방분권은 지방정부 관료와 토호들의 권력만 강화시켜 새로운 관료적 권위주의를 낳게 된다. 주민의 자치능력 향상이 이뤄져야 하고 자치를 위한 자기계발과 참여의식이 필요하다. 주민의 자치능력과 혁신능력을 높여 지방분권에 기초한 지역혁신에 성공할 수 있다.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주민자치의 결합이 이뤄져야 내발적(內發的)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내발적 발전이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앙정부나 외부 대기업 유치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안의 기술과 산업, 문화를 토대로 지역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학습하고 계획하고 경영함으로써 자생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참여·연대, 생태를 지향하는 지역발전

1) 참여

지방정부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종 정책결정과 정책평가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일정한 형태로 참가하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주민참여의 확대는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운영에 필수적인 주민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활발한 의견투입과 감시활동을 통해 정책과정의 혁신을 가능케 한다. 주민의 직접참여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NGO의 참여를 포함하며 지역수준에 걸맞는 참여 민주주의가 구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시민사회의 민주적 통제가 항시 이뤄져야 한다. 주민참여없는 지방분권은 관료와 토호세력들의 권한만 강화는 폐해를 낳게 된다.

2) 연대

사회적 약자나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 공동체의 식없는 지방자치는 쟁점과 사건에 따라 공간적으로 이합집산하는 이익집단 정치에 불과할 수도 있다. 연대 없는 지역혁신은 소수 엘리트들만을 위한 것이므로 지역혁신의 성과가 지역주민들에게 배분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3) 생태

기업은 친환경적 조업을, 지방정부는 친환경적 개발 계획을 수립하며, 주민들은 생태주의적 생활양식을 채택한다. 이것은 성장지상주의에 반대하며 생태계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생태를 지향하지 않는 지방분권은 지역개발을 명목으로 환경 파괴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4. 지방주권 시대

지역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고 지역발전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함평군 나비축제, 장성군 홍길동 캐릭터 사업)와 비전, 우리 '고장'만의 울타리를 초월해 우리 '지역'을 생각할 수 있는 의식수준의 향상이 아직 어린 싹에 불과한 지방자치의 버팀목이 된다.

자치전문가 육성도 지방자치발전이 필수조건이다. 지방자치제도가 문제점 투성으로 매도되는 데는 '배아픈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행정부서의 관료들이 기득권 상실을 우려해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대세를 방해하거나 권한축소를 내심 달가워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은근한 저지움직임 등 반대세력에 맞설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여와 연대, 생태를 지향하는 지방분권, 주민자치, 지역혁신은 21세기 지역발전 모델이다.

지방분권이 성공하기 위한 여러 필수조건들의 공통분모를 찾아낸다면 분권에 대한 지역주체들의 높은 인식과 함께 개개인의 자질과 수준향상이 걸맞게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과 주민들의 자질이 분권의 기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방분권은 오히려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이 돼 부메랑으로 되돌아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권한의 대폭이양을 요구한 만큼 그 권한을 제대로 감당하고 지역발전의 촉매제로 승화시키는 것도 지역민에게 주어 진 의무이다. '의존형 지방화'를 '자립형 지방화'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



이시용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사업단장

전통기계산업을 메카트로닉스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터

☞ 대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면 섬유산업으로 대표되는 지역산업구조와 대구기계부품·소재산업의 영세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대구의 기계금속산업의 비중이 섬유산업보다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1년 광공업통계에 따르면 섬유산업의 비중이 36.2%인데 반해 기계금속산업의 비중이 41.4%입니다. 그러나 대구지역의 기계금속산업의 비중이 섬유산업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대구기계금속산업의 영세성 때문입니다. 종업원 10인 이하의 업체가 51.2%로 매우 영세한 수준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다보니 신제품개발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R&D 시험평가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영세한 규모의 기업에서는 시험 평가 장비 투자는 매우 어려운 여건입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설립된 이유중의 하나가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이 갖추기 힘든 고가의 시험평가장비를 구축하여 신제품 개발, 품질 개선, 신뢰성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 지난 6월호 『산학리뷰』에서와 같이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사업의 최종 목표가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대구지역 기계·금속소재분야 제품의 품질수준 제고를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관련 제조업체에서의 院에 대한 인지도 및 시험평가 해당 품목과 종류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
- 시험결과 불합격 제품이나 소재에 대한 院에서의 해결 및 대책은 ?
- 이미 지역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사용가능성 및 협조체계는 ?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는 그간 기계금속 시험평가센터 설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시험평가동을 지난 5월말 경에 완공시켰으며, 총 18종의 시험 평가장비가 설치 완료되어 중소기업의 시험 평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중소기업의 경영자층에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나 개발 실무자들에게까지는 널리 알려지기에는 연구원이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현재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는 on-line, off-line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평가설비들의 리스트 및 시험평가가능한 항목들은 연구원의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별도의 인쇄물들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는 현재 총14명의 전문연구인력이 일하고 있으며 장비가동율이 높아지면 추가로 수명 더 전문시험평가요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문연구인력의 산업체 또는 연구소에서의 평균 근무년수가 10년 이상으로 비교적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장감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서 신제품 또는 양산중인 제품의 품질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보다 심도있는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의 우수한 교수진들과 공동으로 산학연 연계하여 추진할 예

정입니다.

현재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경우에도 산학연 공동으로 공동활용할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제품개발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 院에서도 많은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각계 각층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실텐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대구광역시와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지역산업진흥사업의 하나로 대구메카트로닉스부품산업화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카트로닉스산업은 기계기술과 IT기술이 융합되는 산업으로 고부가가치적 원가구조를 갖는 산업으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기계산업의 메카트로닉스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대구는 구미의 전자정보클러스트에 근접되어 있고 지역 대학의 우수하고 풍부한 인재 Pool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첨단산업 단지의 예를 들면 12개의 업체가 메카트로닉스 부품 및 설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4차 단지에도 다수의 메카트로닉스부품 관련 업체가 유치될 전망입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내에 메카트로닉스부품산업화센터가 설립된다면 대구지역의 전통기계산업이 메카트로닉스부품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핵심



기술 및 메카트로닉스 부품 개발 인력을 교육 및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리라 기대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전통기계산업의 메카트로닉스부품산업전환은 필수적이며 센터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저희 산학경영기술연구원에는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의 발전을 기대하고 계시는 학계·업계 회원분들이 많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지역기업이 원하는, 지역기업실정에 맞는 연구소가 되고자합니다. 그 규모는 정부출연연구소보다는 작지만 신속하고 유연한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소수정예의 연구인력으로 지역기업의 눈높

이에 맞춘 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계, 학계간의 네트워크를 조성 및 강화시키는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구지역 많은 기계금속업체들의 사랑방이 되어 신제품 개발, 품질개선, 사업설명회, 교육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이 극대화 되기 위해서는 산업계, 학계, 관계의 많은 관심과 발전을 위한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

· 대 담 : 김능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구경북지원장

· 일 시 : 2003년 6월 27일(금) 13:30

· 장 소 :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사업단장실

· 연락처 : 053)584-9302~3

www.dmi.or.kr

연구원 소식



제158차 월례세미나 개최

지난 6월 17일(화) 18:00~20:00까지 대구프린스호텔 별관 5층 글로리홀에서 「참여정부의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이라는 주제로 '제158차 월례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133차 이토회 개최

지난 7월 12일(토) 오후 3시 앞산에서 '제133차 이토회'를 가졌다

신입회원을 환영합니다



■ 최영철

- (주)삼코 대표이사
- 생년월일 : 1950. 12. 21
- 주소 : 대구시 달서구 파산동 704-9
- TEL : 053)593-3800



회원동정



■ 김상무

김상무 한국관광학회(계명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은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핀란드 조엔수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제관광학술원(IAST) 주최 학술회 주제발표와 정기총회 참석차 28일 출국



■ 김영재

김영재 동국대학교 상경대학장은 6월 26일 경주시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7월 4일 UBC(울산방송) 「시사진단! 함께 풀어봅시다」(주제: 노사분규와 지역경제)에 패널로 참석

• 해외 교류증진 및 협력 확대를 위해 18일 미주 지역의 영남대 동창회와 자매대학을 방문, 25일 귀국



■ 김원경

김원경 경동정보대학장은 7월 15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금호공업고(교장 박은식), 영천정보고(교장 김재호)와 연계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상호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실

업고 연계교육 협정식을 체결



■ 김은수

김은수 경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지방대육성과제 제안서의 작성 총괄을 맡아 2차년도 계속과제 신청서를 6월말 제출, 실사를 거쳐

7월21일 최종 지원과제로 선정되었다는 공문(국비 15억 원 지원)을 받음. 2차 사업인 '경운대학교 멀티미디어컨텐츠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올해 12월말까지 진행됨

• 지난 5월 사업계획서 작성 총괄을 맡아 행정자치부 지원과제로 선정된 '첨단 모바일산업지원센터 설립' 사업이 경상북도와 구미시의 중점 지원사업으로 채택, 2007년까지 3차년도 100억원 규모로 확대되어 추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올해 국비 및 지자체 지원 16억원을 포함하여 24억원 예산으로 12월 말까지 1차년도 사업이 진행됨



회원동정



■ 김재구

김재구 성덕대학 기획실장은 호주, 뉴질랜드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벤처마킹과 산업단지 방문을 위해 6월 24일 출국, 7월 4일 귀국

• 7월 10일, 11일 이틀간 영천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경찰과 인권」을 주제로 특강



■ 김재근

김재근 계명문화대학 식품과학과 학과장(대구경북 교수선교회 사무간사)은 6월 14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대학 식품영양관련학과 교수협의회 임원회」에 참석

- 27일 대구 롯데백화점(8층)에서 개최된 한국식품영양학회 및 협의회 하계연수에 관련, 대구·경북지부회의에 참석
- 7월 1일~2일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명진당 강당에서 전국대학교수 선교연합회 주최로 개최된 「신앙과 학문」이란 주제의 제18회 전국대학교수 선교대회에 참석
- 한국로고스경영학회와 우즈투스학술진흥재단 공동주최로 타슈켄트주립공업대 국제학술대회 참석 및 「소아시아 일곱교회」 성지순례를 위해 7월 2일 출국



■ 김주훈

김주훈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은 6월 13일 TBC간담단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특집 토론회에 생방송 출연

- 6월 25일, 26일 「2003년 통화정책 경시대회」 지역 예선전을 개최(우승: 한동대학교, 준우승: 영남대학교)
- 25일 대구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중소·벤처기업 CEO 경영혁신 아카데미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흐름의 이해와 CEO의 경영전략」 특강



■ 남성희

남성희 대구보건대학장은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대구U대회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대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상임공

동대표로 활동

- 7월 11일 대구보건대학 대강당에서 전국 방사선과 교수 80여 명이 참석한 방사선과 교수협의회에서 「전문대학 교육의 한계 - 지식의 단편화」를 주제로 특강



■ 박재철

박재철 2003 대학생 해외봉사단장(영진전문대학 인터넷전자정보계열 교수)은 8월 2일까지 방글라데시 시라지간지에서 사랑의 집짓기, 컴퓨터교육 등 봉사활동을 위해 대학생 봉사단 22명

을 인솔하여 7월 13일 출국



■ 이동건

이동건 삼화건설(주) 대표이사는 사무실 이전

- 주소: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77-1
- 전화: 053)759-3883
- 팩스: 053)753-0118



■ 이동만

이동만 한국경영정보학회 회장(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은 6월 20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디지털 경영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개최



■ 이영세

이영세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은 6월 19일 대구지방경찰청 회의실에서 이병진 대구지방경찰청장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경·학 상호 교류협약을 체결

- 7월 25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박찬석 前 경북대학교 총장 등 발전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사이버대 발전자문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 이재녕

이재녕 대덕문화전당관장은 7월 22일 문화전당 제1기 운영자문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 첫 자문회의를 개최

■ 이종준

이종준 계명문화대학 경영과 교수(평생교육원 원장)는 6월 20일 계명문화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개설 운영한 전통 요리반 및 테이블 세팅 디자인반에서 한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계명문화대학 도서관 전시실에서 전시회를 개최



회원동정

- 26일~27일 1박 2일 동안 제주도 오리엔탈호텔에서 (사)한국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협의회 제23회 임시총회 및 원장 세미나에 참석
- 7월 7일부터 16일까지 정보통신부와 한국실버넷운동본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55세 이상 지역주민 50명을 대상으로 계명문화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컴퓨터 무료교육 실시
- 21일 계명문화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제23기 대구시내 중등학교 학생상담 교사 82명의 직무연수(7월 21일 ~ 8월 1일) 개강식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교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란 주제로 특강
- 23일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계명문화대학 평생교육원에서 학교 정보화 전문요원 직무연수(7월 23일 ~ 8월 2일, 웹자료 제작·활용 28명, 정보활용능력 44명) 개강식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경제사정과 실업"이란 주제로 특강



■ 이화락

이화락 영신철강(주) 대표이사는 창립 14주년을 맞이하여 확장이전

- 주소 : 대구시 북구 산격동 1763번지
- 전화 : 053)381-7500
- 팩스 : 053)381-7507



■ 이 훈

이 훈 (주)e-SIS 대표이사는 6월 20일 인터볼호텔에서 「삼립산업의 성공적인 EKP구축사례 발표회」를 개최

- 경일대 경영공학부와 DynaPDM(제품정보관리) 및 T Cubic SCM(공급망 관리) 솔루션 공급계약을 체결



■ 임경호

임경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前 경기도지사)은 2004년 4월 30일까지 일한 문화교류기금의 지원을 받아 일본 게이 요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자격으로 일본 지방자치제도 연구차 일본으로 출국



■ 조재룡

조재룡 (주)한국중소기업컨설팅 대표이사는 7월 4일 「2003년도 대구보건대학 창업강좌」인 장애인을 위한 창업스쿨에서 '창업사업계획서 작성방법' 강의

- 16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한합산업(주) 포항2공장 품질경영시스템실무과정에서 「시스템적 사고와 프로세스」 강의



■ 최달곤

최달곤 영진전문대학장은 한국생산성본부와 미국 미시건대학이 공동으로 실시한 2003년도 2/4분기 국가고객만족도조사(NCSI) 전문대학 부문에서 최고점인 85점을 기록, 이 부문 3년 연속 1위를 차지



■ 한이식

한이식 (주)나라비전 대표이사는 사무실 이전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35 한신IT타워 401호
- 전화 : 02)6334-5300
- 팩스 : 02)6334-5301



■ 황대현

황대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은 6월 17일 성서농협 제16기 주부대학 수료식에 참석, 지역발전을 위한 주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

- 20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주관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워크숍」에 토론자로 참석
- 21일 유관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동 경로당 준공식을 갖고, 참석자들을 격려
- 7월 21일 대구 알리앙스 예식장에서 40여 년 공직생활 동안 써 온 글 모음집인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출판기념회를 가짐



■ 김극년(본원 고문)

김극년 본원 고문(대구은행장)은 7월 23일 대구은행 본점 10층 회의실에서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화합 선언문」을 채택, 새로운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금융권에서는 최초로 노사화합을 선언



회원동정



■ 이상천(본원 고문)

이상천 본원 고문(영남대학교 총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전략 분과 위원)은 6월 26일 과천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정책기획위원회 상반기 세미나에 참석



■ 조해녕(본원 고문)

조해녕 본원 고문(대구광역시장은 7월 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U대회 주관방송협약 서명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 28일 오는 9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 3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선수단 훈련장을 방문, 선수와 지도교사, 훈련위원을 격려하고 격려금 전달



■ 최용호(본원 명예원장)

최용호 본원 명예원장(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은 6월 1일 2·28 민주공원의 임시 개원식에 참석

• 10일 구미시와 구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기업하기 좋은 구미의 비전

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종합토론 사회

• 14일~22일 Northern Ireland의 Belfast 시에서 열린 제 48차 국제중소기업협의회(ICSB) 세계대회에서 "The Support System for Venture Firms at Korea Technoparks"란 논문을 발표하고, Ireland 국의 수도인 Dublin시 일대의 투자환경조사

• 24일 대구한백청년회에서 「경제환경의 변화와 청년기업인의 자세」를 특강

• 30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자문교수회의



■ 구정모(본원 부이사장)

구정모 본원 부이사장((주)대구백화점 대표이사)은 6월 20일 대백프라자 예술극장에서 제3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 52,269억원의 매출과 당기 순이익 265억원을 올림(배당금은 주

식 2%와 현금 6%로 각각 결정)

• 25일 국내 백화점 처음으로 언어장애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문자전달판을 설치운영

• 28일 대백프라자 정문광장에서 장애우와 혼자사는 노인 등에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순간 전기온수기, 욕조, 샤워기 등을 갖춘 가정 방문 목욕서비스 차량을 범물중합사회

복지관에게 전달

• 7월 1일 대백프라자 예술극장에서 '윤리경영선포식'을 갖고 전 임직원이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실천, 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앞장서기로 함

• 3일 국제구호기관인 월드비전 대구경북지부가 여는 기아 체험 24시 프로그램에 8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희망 2003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수여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

참가조의를 표합니다

• 권인달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부친상 : 2003년 7월 17일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학논총", 2003. 2. 28
-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2002", 2003. 6. 17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대구지역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방안", 2003. 6
- 삼성경제연구소, "불황 때는 팔릴 물건을 만들어라", 2003. 6. 18
- 삼성경제연구소, "단기 부동산금 급증의 실상과 해결방안", 2003. 7. 2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연구", 2003. 6
- 한국금융연구원, "국민의 정부 5년", 2003. 6
-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 "중국경제의 고성장 배경과 성장 지속 가능성", 2003. 6

정기간행물

- 경북테크노파크, "KTP 헤드라인", 2003. 5/6
- 경상병원, "경상원보", 2003. 여름호
- 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 "달성산업단지 NEWS", 2003. 7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대구경북포럼", 2003. 5/6
- 대구경북건직물공업협동조합, "섬유직물소식", 2003. 7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달서", 2003. 7
-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경북 경제동향", 2003. 6
-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DYETEC VISION", 2003. 6
-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2003. 7
- 산학연종합센터, "산학정21", 2003. 7. 5
- 산학연종합센터, "산학정21", 2003. 7. 20
- 서울경제, "POPULAR science", 2003. 7
- 신용보증기금, "보증월보6", 2003. 6
- 열린전북, "열린전북", 2003. 7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2003. 6
- 좋은 이웃집, "경제풍월", 2003. 7
- 증권거래소, "주식", 2003. 7
-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Corporate Governance Review", 2003. 4·5
- 한국무역협회, "무역", 2003. 7
- 한국발전연구원, "한국발전 리뷰", 2003. 7
- 한국산업기술재단, "KOTEF news", 2003. 7
- 한국산업기술재단, "KOTEF 저널", 2003. 여름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기협 기술관리", 2003. 7
- 한국산업정보센터, "레이저 기술", 2003. 7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 2003. 7
- 한국선물거래소, "선물시장 리뷰", 2003. 6
- 한국수출입은행, "수은 해외경제", 2003. 6
- 한국수출입은행, "수은 해외경제", 2003. 7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지역 경제동향", 2003. 5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3. 6
- (주)효성, "토프론 섬유", 2003. 7·8

연구원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 연혁 및 현황

1990년 6월 지역의 학계 교수, 기업체 경영자, 기관 단체장이 산학협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하자는 순수한 취지로 산업자원부의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창립하였으며, 현재 46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 : 정성진 국민대학교 총장
- 원 장 : 최만기 계명대학교 교수

■ 주요사업

- 산학협동 세미나 개최
- 산업시찰 실시
- 산학리뷰 발간
- 조사분석, 기술개발 연구
- 각종 개발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 수행
- 경영자 및 임직원의 교육훈련
- 회원친선 교류사업

■ 회원가입 자격 및 회비

- 학계회원 : 국내외 학계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입회비 5만원, 연회비 7만원)
- 업계회원 : 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연회비 80만원)
- 유관기관회원 : 금융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
(연회비 80만원)
- 유관개인회원 :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원으로
로서 개인자격(입회비 5만원, 연회비 15만원)
- 영구회원 : 회비 일시납부 회원
(개인 100만원, 기관 1000만원)

■ 연구원 거래은행 계좌

- 대구은행 : 018 - 04 - 304943 - 001
- 예 금 주 :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

- 본 연구원에 납부 또는 지원하시는 회비, 연구비 그리고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 1호에 의거, 지정 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원고 및 광고게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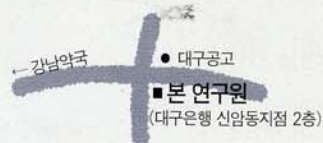
매월 3,000여 부를 제작·배포하는 본 산학리뷰지는 회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적극적인 원고 기고 및 광고게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연구원 사무국 T.(053)959-2861~2)

■ 2003년 7월호 (통권 147호)

- 간 별 : 월간
- 등록 번호 : 대구라01089
- 등 록 일 : 1998년 6월 2일
- 발 행 소 :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
- 발 행 일 : 2003년 7월 30일
- 발 행 인 : 최만기 (계명대 교수)
- 편집위원장 : 정인상 (경북대 교수)
한성덕 (대구대 교수)
- 편 집 위 원 : 김능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구경북지원장)
김영재 (동국대 교수)
김용준 (영남이공대 교수)
박구진 ((주)애드밸리 대표이사)
박진항 ((주)멀티애드메이저 대표이사)
이동형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황남성 (영남이공대 교수)
조정일 · 임재현 · 최영애 (상임연구원)
- 기획·편집 : (주)멀티애드메이저(053-751-5005)



산학 産學經營技術研究院

UNIVERSITY-INDUSTRY RESEARCH INSTITUTE

701-814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3동 164-1번지
TEL.(053)959-2861~2 FAX.(053)959-2860
http://www.uri.or.kr
e-mail : uri@uri.or.kr

면대면 학습 교육과 원격교육을 동시에 구현

* 전자 칠판 + 첨단 멀티미디어 콘텐츠 저작시스템
실시간으로 강사음성/영상, 판서내용, 교재화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VOD 서비스 가능한 ASF 파일로 변환

주요기능

1. Windows상의 모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활용가능
2. 아이콘 없이 H/W Controller의 버튼을 이용하여 전자칠판 기능을 수행
3. 원터치로 실시간 녹화 및 동영상 Contents 제작 가능
4. 판서내용을 저장, 인쇄 및 원터치로 메일보내기 가능
5. 원하는 펜/형광펜의 색상 및 굵기 등을 모두 지원
6. 노트북연결단자와 외부연결단자가 장착되어 있는 노트북, LCD Projector 등의 외부 장비와의 연결이 용이

적용대상

→ 대학, 초/중/고, 유치원, 관공서, 병원, 학원, 기업, 호텔, 수련원, 연수원 등 사회 전 분야

적용분야

- 각종 교육기관의 강의 및 세미나
- 관공서, 기업 등의 회의 및 프레젠테이션
- 영상회의 및 원격교육
- 회사소개 및 제품 프레젠테이션 등

부가서비스

1. 펜슬론 플러스 사용자를 위한 커뮤니티 제공
2. 무료 사이버 강의용 사이트 Modncampus 제공
(www.modncampus.co.kr)
3. 온라인 무상 Upgrade : [고객지원] ▶ [다운로드]
4. 조직적이고 신속한 A/S 처리 및 교육 실시

규격 및 사양

- 좌표인식 모니터 : MPL-15P, MPL-15PT, MPL-17P
- 외부 입력 : RCA * 1, S-VHS * 1 (15P, 17P만 해당)
- PenSlon Plus Controller : MP-C1
- S/W 프로그램
 - 판서지원 Software : ModnPen
 - 동영상 콘텐츠 제작 Software : ModnCAM
 - 동영상 콘텐츠 편집 Software : ModnCAM Editor
- Omni Control Box
 - VGA/USB/RS-232C 스위치 컨트롤 및 Lamp 구동 회로
- In/Out Port 및 Socket

< 상단 >

- Omni Button : RGB/USB/Serial
- RGB(In) : Mini D-Sub 15-pin * 1

※ 오디오 앰프 외 기타 장비의 탑재와 스피커의 내/외부 실장, LCD프로젝터의 컨트롤도 가능

- RGB(Out) : Mini D-Sub 15-pin * 1
- Serial : RS-232C, D-Sub 9-pin * 1
- USB : USB Connector * 1
- LAN : LAN Port * 1
- Audio : Mic Cannon Jack * 1
- 전원 : NoteBook용 전원 소켓 * 1
- 전동 스크린 Up/Stop/Down Switch

< 하단 >

- LAN : LAN Port * 2
- Audio : Mono 55 Jack * 2
- 전원 : AC 220V 60Hz 접지형 소켓, 4구 접지형 멀티탭

■ 치수(mm) : 700(W) * 1160(H) * 600(D)

■ 재질 : 목재 및 알루미늄

